

# A Study on the Loss of Community and the Role of the Church in its Restoration as Seen through 'I, Daniel Blake'

Kim Junghee\* · Hwang Hyejin\*\*

(Mokwon University) · (Mokwon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film that portrays the problem of community loss, a characteristic phenomenon of contemporary society, and to explore the role of the church in its restoration.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 Both Korea and the world are currently facing a crisis of subject alienation and community loss. While welfare systems are policies designed to overcome these situations, they reveal various limit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concrete realities caused by such proble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vie "I, Daniel Blake." The film illustrates the potential for community recovery through mutual aid and solidarity, while also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such attempts. Consequently, it raises the necessity of reflecting on and practicing the community spirit of the early church to ultimatel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welfare systems.

**Results and Conclusions :** In modern society, where subject alienation and community loss are accelerating, it is essential for the church to reaffirm and practice the community spirit of the early church to address these issues effectively.

## Key Words

Subject, Community Loss, "I, Daniel Blake", Welfare System, Neoliberalism, Early Church's Community Spirit, Restoration

##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본 공동체 상실과 그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정희\* · 황혜진\*\*  
(목원대학교) · (목원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현대 사회의 특징적 현상인 공동체 상실의 문제를 재현한 영화를 분석하고 그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한국을 비롯해 세계는 현재 주체의 타자화, 공동체 상실이라는 위기 속에 있다. 복지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고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현실을 탐구한다. 이 영화는 상호부조와 연대가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한 시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복지 제도의 한계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 갖는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주체의 타자화와 공동체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주제어》

주체, 공동체 상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복지 제도, 신자유주의, 초대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 2024년 8월 22일 접수, 2024년 9월 28일 심사완료, 2024년 9월 29일 게재확정

\* 주 저 자 : 목원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lalaente@naver.com

\*\* 교신저자 :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whanqhj1004@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는 사회성을 상실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이해가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이웃에 대한 관심’은 ‘사생활 침해’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을 촘촘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 존중과 별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간 관계 맺음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막는 원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적 포스트모던주의 등에 의한 개인 간 갈등이다(김성원, 2023, 139). 이 갈등은 개인 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 대 사회로 확대되기도 한다. 주체로서의 개인은 사회에서 그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다. 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낙오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복지이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가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지 제도 안에서도 차별과 멸시, 충돌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회적 낙오자 혹은 사회적 약자가 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정 배경에 의해, 학교 배경에 의해, 신체적, 경제적 배경, 연령적 배경에 의해 의도치 않게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가 불충분한 상황에 개입하여 개인 주체의 사회적 추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회복이 요구된다. 본고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특징으로서 공동체성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폐쇄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자기 가치 및 자기 성찰을 지향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상실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서구 철학에서 노정된 주체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타자의 철학을 제안한 레비나스의 관점을 소개한 뒤에, 문제적 상황으로서 복지 상실의 현실을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분석하고 주체의 타자화, 공동체의 상실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의 역할 안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지 않지만, 신학과 윤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문제적 상황으로서의 공동체 상실의 현장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음을 밝힌다.

## II. 문제 제기와 이론적 배경

## 1. 주체의 타자화와 공동체의 상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개인이 직통하는 길을 열었으며, 칼뱅이 내세운 소명인 직업 소명, 금욕주의, 예정론, 신의 영광 등은 개인의 노동과 부의 축적을 긍정하는 자본주의적 사고의 뿌리가 되었다. 그런데 개신교의 존재론적 기반이 된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기독교적 신념으로 단일하게 구조화된 중세적 세계관의 점진적 붕괴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렇듯 근대의 출현은 내면을 가진 개인의 탄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인클로저 운동으로 대변되는 유럽의 구조적 변화는 귀속적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던 농노들을 도시에 세워진 공장의 임금 노동자로 내몰았다. 전근대적 농촌 공동체로부터의 인구 이탈이 곧바로 공동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의 노동이 아니라 공장과 개인의 일대일 계약이 요구되는 사회로 진입한 것은 전통적 공동체 기반의 약화를 예고했다.

그렇다면 개인의 철학적 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인가? 주체는 객관적 실체로서 신의 관념이 허약해진 자리를 대체한, 데카르트 이후 서구 관념론적 형이상학의 핵심이다. 인식하고 사고하는 ‘나’를 의미하는 주체가 신에게 부여되었던 초월적 지위와 자기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인식하는 존재로서 주체는 인식의 대상을 객체로 규정하는데 문제는 주체가 데카르트의 합리론이나 흄의 경험론 모두에서 인식자 자신의 주관성을 유일한 인식적 가능성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라는 데 있다. 개인의 주관성을 장착한 주체는 객체와 대립하며 객체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자기 동일성 속으로 끌어들여 타자로 명명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으로부터 이탈한 인간은 봉건적 절대주의를 타파하였지만 부르주아적 지배, 제국주의의 등장, 서구중심주의의 폐해 등 주체에 의한 타자의 지배라는 억압적 현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윤효녕 외, 1999, 1-3).

제국주의 열강들의 상호 경쟁 과정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내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심화 단계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과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다. 특히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는 이성이 지배하는 계몽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서구인들의 신념이 환영에 불과했다는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이렇듯 주체 중심의 철학과 사유가 타자를 몰아낸 서구적 정신 안에서 본격적으로 타자를 호명하는 것은 레비나스였다. 전쟁의 피해자였던 그는 유럽의 전체주의를 유럽 철학이 빚어낸 파국으로 보았는데, 유럽 철학 역시 전체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폭력적 요소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성의 체계가 개체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들은 타자화되어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한편 레비나스는 포스트모던 철학에서 주장한 주체

의 해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주체의 전체주의화는 물론 주체의 해체 역시 개인의 인격성과 타자성, 인간 존재의 윤리적 의미를 밝혀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그의 철학은 무한자로서의 주체성을 변호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주체의 윤리적 책무는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주체가 주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정립해 타자를 수용하고 손님으로 환대해야 하는 것이다(강영안, 2005, 29-32).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타자와의 관계는 얼굴의 현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대상을 보는 것과 달리 일종의 계시로서 주체의 참된 인간성이 열리는 경험, 윤리적 호소에 처하는 경험이다. 이 관계는 낮은 타자가 궁핍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주체의 자유를 문제 삼으며 주체로 하여금 윤리적 요구에 답하도록 한다(강영안, 2005, 36).

레비나스의 철학은 형이상학적 주체로 모든 것을 수렴하는 서구적 관념론에 도전하며 주체와 타자 간의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모색하라는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의 상처가 제국주의 열강들의 협상 속에서 서둘러 봉합되고 세계가 냉전체제로 고착되면서 타자를 환대하는 주체와 그들의 공동체는 유토피아에 머물게 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요구 대신 자유경쟁의 시장 원리에 중점을 둔 신자유주의 정책, 즉 국가규제의 완화, 민영화, 감세, 노조 약화, 사회 보장 축소를 시도한 이후 스스로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소시민 주체/들까지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작동 원리는 국제적으로는 WTO의 설립을 통해 관세 철폐와 같은 자유무역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국가들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강대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시장 경제가 필연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잠재하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모순이 최대화된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과연 주체와 타자가 윤리적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을까? 전근대적 의미의 농촌 기반형 공동체가 산업혁명 이후 붕괴하면서 매우 느린 속도지만 공동체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출현한 복지 제도마저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타자화된 주체를 애도하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까?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목전에 닥친 지금, 이곳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무력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며 그 관계의 기반은 무한대의 연민, 즉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주체와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의 긴급한 요청이 된다.

## 2. 복지 상실

복지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사회제도, 규율, 원칙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 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또 앞서 언급했듯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복지 제도는 여타 사회제도의 틈을 메우는 보완 장치가 되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 생활은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으며, 현대적 복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상부상조는 이웃이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1960-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되면서 물질 추구 현상이 일반화되고 공동체가 시작되었다(황경훈·이미영, 2014, 152).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통해 복지에 대한 이해와 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복지정책이 고도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복지 제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불황에 따른 청년 실직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서의 복지 제도가 정착될수록 실행 지침은 매뉴얼화된다. 제도가 관료제 안에서 규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스템이 정교하게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에 따른 복지 소외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고도화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전통적 관념의 산물로서 마치 질 높은 사교육 시스템에서 도태된 학업 하위자의 실패를 본인의 게으름과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 결과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일수록 약한 자, 소외된 자, 배제된 자에 대한 배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어 존엄성을 상실하게끔 만들고 있다. 그 한 예로써, 복지 제도 중 가장 일차원적인 복지수당과 실업수당을 들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자 저소득층 지원 정책인 복지수당과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실업수당은 실질적이며, 형식적이지만 가장 빠르게 문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 간의 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복잡하고 엄격하여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등 현장에서의 필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 Ⅲ. <나, 다니엘 블레이크> 분석

#### 1. 신자유주의적 복지 제도 안에서 타자화되는 주체/들

영국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생산의 과잉과 소비의 부진이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에 봉착하면서 산업 구조의 재편을 포함한 개혁 과제를 요구받게 된다. 마거릿 대처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보수당의 수장이자 영국 수상으로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는 시장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브래드 오브>(마크 허만, 1997), <풀 몬티>(피터 카타네오, 1998), <빌리 엘리어트>(스티븐 달드리, 2000)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탄광, 철광 폐쇄 및 구조 조정이 초래한 문제점을 비판한 대표적인 영화들이다. 대중영화가 일정하게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사회의 모순을 탐구한다는 명제를 따르자면, 이 영화들은 경제적 고난에 부딪혀 주체로서의 일상적 삶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국의 현실을 성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9)의 감독 켄 로치는 1964년 BBC의 시리즈물로 데뷔한 이래 최근까지 위의 명제에 천착해 ‘권력을 갖지 못한 평범한 동시대 인물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복지 제도를 직설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켄 로치의 특징이 가장 잘 집약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 1) 다니엘의 타자화

영국 북동부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뉴캐슬, 다니엘은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로의 남성이다. 유능한 목수였지만 현장에서 추락할 뻔한 이후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 실업 상태가 된 그는 질병수당 신청이 기각되자 질병 수당 재심과 실업수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영화 초반부의 다니엘은 쾌활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다. 이웃 흑인 청년에게 쓰레기를 제때 버리라는 잔소리를 하지만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는 그의 부탁도 선선히 수락한다. 그런가 하면 옛 직장을 스스럼없이 찾아가서 근황을 공유하고 자투리 목재를 얻어오기도 한다. 언젠가 도움을 주겠다는 동료의 반응으로 보아 다니엘이 존경받는 선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실한 납세자였던 만큼 당연한 권리로서 제도의 도움을 요청하던 다니엘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보조금 신청 과정의 매뉴얼이 탈인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질병

수당 지급을 거부당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시간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작 주치의는 아직 일터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상호호순적인 제도의 개입은 다니엘을 혼란스럽게 한다. 보조금 지급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데 그의 현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관료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평생 성실한 노동자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다니엘은 심사과정 중에 만난 심사관이나 일자리센터 직원들 대부분이 자신을 서류 속에 존재하는 민원인 나아가 거짓말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는 몰개성인 존재로 대한다는 사실에 점점 좌절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다니엘은 “나는 연필세대”라며 기관의 배려 없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다행히 도서관에서 주변 청년들의 도움으로 겨우 문서 작성을 마치는가 싶었지만 컴퓨터 사용 시간 제한에 걸려 문서가 날아가는데 이와 같은 디지털 격차 문제는 다니엘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함으로써 타자화되는 서사의 장치로 작동한다.

다니엘이 일자리센터의 요구대로 이력서 특강을 수강하는 장면도 자본주의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강사는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계수치를 제시한 후, 10초 만에 자기 능력을 인사담당자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십 년에 걸쳐 숙련된 기술을 연마한 다니엘의 능력은 이력서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온라인 지원이나 자기 소개 동영상 제작은 불가능한 일이다. 구직 특강은 일자리센터의 매뉴얼화된 지원 체계와 유사하게 멀리서 보면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주체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주창했던바, 고용주에게 선택받기 위한 피고용인들 간의 무한 경쟁만이 허용됨으로써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추방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 2) 케이티의 타자화

다니엘의 현실과 더불어 런던에서 이사 온 싱글맘 케이티의 곤궁함도 주체가 타자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일자리센터를 방문한 다니엘은 지리를 몰라 늦었다는 이유로 보조금 신청 인터뷰를 하지 못한 데다가 제재 대상이 된 그녀를 돕고자 한다. 방문자들 역시 상황을 이해하고 인터뷰 순서를 양보하지만, 원칙을 앞세우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냉랭하다. 다니엘은 케이티의 집까지 동행해 사정을 듣게 된다. 런던에서 주거 보조금을 받지 못해 노숙자 쉼터 생활까지 했다는 그녀가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작은아들 딜런이 정서 불안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케이티는 뉴캐슬에서 집을 지원 받았으나 아이들 전학 비용으로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가 끊겨 난방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일자리센터 직원들의 원칙이 가난한 싱글맘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배제의 담론으로 작용한 것이다.

케이티는 청소일이라도 하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지만, 보조금 수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식생활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그녀는 식료품 지원센터에서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통조림 음식을 맨손으로 먹고 마트에서 여성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되는가 하면 결국 성을 거래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 영화는 절도, 성매매와 같이 맥락을 모르면 범죄로 여겨지는 케이티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식료품 지원센터에서 여성용품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그녀가 왜 학교에 다니는 딸 데이지에게 운동화조차 사주지 못하는 처지로 살아야 하는지 질문하게 한다. 시급한 복지의 대상이 관료주의적 효율성 우선의 원칙을 핑계로 ‘접수’, ‘등록’되지 못하는 현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한 관객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 3) 신자유주의 하의 복지 제도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켄 로치의 전작들이 그랬듯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관찰 하듯 보여준다. 주인공 다니엘과 케이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단지 현재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다니엘과 케이티와 같은 보조금 신청자들을 상대하는 복지 전문가들이 비인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복지 관련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성과 더불어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 과부와 고아의 얼굴로 현현한 타자를 끌어안음으로써 주체와 타자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지향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할 것을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들은 복지 제도의 민영화와 관료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스란히 체현하고 있다(윤종욱, 2020, 18-21).

오프닝 장면은 민영화된 복지 제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페이드 아웃된 화면을 배경으로 나오는 질병수당 지원대상자 심사관과의 인터뷰는 사운드만으로 재현되는데, 인터뷰 후반부에 다니엘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보여질 때도 상대방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는다. 그는 다니엘과 대면하고 있으나 매뉴얼이 의인화된 존재일 뿐이다. 관객은 다니엘의 특수한 상황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심장 질환과 무관한 질문만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심사관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심사관이 정부가 고용한 미국 업체에 소속된 의료전문가라는 사실은 복지 제도 역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시장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저해할 수밖에 없는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즉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장제도조차 신자유주의의 도래 이후 시장 원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회사에 고용된 전문가들은 위계적 서열의 윗자리에서 익명으로 존재하며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할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고 제재조치 예고를 통해 압박한다. 심지어 그들은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그다지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제도의 운영에 있어 윤리 감각을 갖춘 전문성보다 회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 2. 상호부조와 연대의 시도에서 보이는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과 한계

### 1) 주체 간의 상호부조와 연대의 시도

복지 제도는 설계 및 작동 과정이 효율과 비용 절감의 논리에 매몰된 상황은 주체로서의 공동체 구성원을 주변으로 추방하는 결과를 낳는다. 타자화된 주체가 공동체 내부의 난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고병권, 2009, 56-57). 실제로 다니엘은 생활고에 시달려 집 안의 모든 가구를 헐값에 내다 파는데, 전화기를 올려둘 테이블도 없는 그의 거실은 난민의 거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에서 지원한 케이티의 낡은 집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청소하는 도중 욕실 타일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에서 정상적인 상태의 주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타자화된 주체로서 다니엘과 케이티의 절망적인 현실을 재현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일상을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의미화함으로써 주체와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가구를 포기하면서도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든 풍경과 손때 묻은 공구를 지키는 다니엘, 누추한 집이지만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케이티의 일상 속 선택이 그들을 타자화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서사를 잃은 무기력한 난민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주체의 삶을 구성해 온 서사, 즉 각자의 습관과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다니엘이 케이티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카세트 레코더와 테이프를 선물하는 부분이다. 병중이었던 그의 아내가 즐겨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 다니엘은 복지수당 신청인이라는 서류상으로 분류되는 익명적 존재를 벗어나 생생한 서사를 가진 고유한 개인 주체임이 드러난다.

서로의 서사를 알고 이해하게 된 다니엘과 케이티, 아이들은 유사가족적 관계를 맺는다. 다니엘이 집수리, 약간의 현금을 포함해 케이티와 자녀들에게 베푼 다니엘의 호의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딜런의 정서 불안은 빈곤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다니엘과의 관계 덕분에 호전되며 테이지는 연락이 끊어진 다니엘을 염려해 음식을 들고 찾아온다. 이제는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는 어린 소녀의 위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회복이 물질적·정서적 나눔과 상호 신뢰로부터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니엘과 이웃 청년 사이의 교류도 이웃 간의 연대감을 보여준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보이는 청년은 중국에서 만든 짝퉁 운동화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

가 국가의 단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 신자유주의적 현실에 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 있는 설정이다. 그런데 이 영화는 청년의 불법적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평소 다니엘을 염려하고 질병수당 재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해주는 선의에 주목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양극화,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를 역으로 이용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는 켄 로치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자리센터에서 유일하게 민원인의 편을 들어주는 앤, 도서관에서 만난 청년들도 자기 능력 안에서 타자를 돕고자 하는 선의를 가진 인물들이다.

케이티와 관련된 상호부조의 형태는 그녀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으로 인해 양가적 특징을 띤다. 식료품 지원센터에서 만난 봉사자는 그녀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챙겨주려 노력한다. 지원센터에서 여성용품을 구하지 못한 케이티가 마트에서 절도하다가 들켰을 때, 신고도 하지 않고 훔친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는 보안 책임자 역시 소극적이거나 타자와 윤리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문제적인 인물은 그녀의 절도를 목격하고 보안 책임자에게 보고했던 마트의 남성 직원이다. 그는 케이티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친절을 보이지만 결국은 그녀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소개한다. 남자 직원처럼 업소 운영자도 다정한 말투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이 언술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성매매 알선이 ‘도움’으로 왜곡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생계의 위협에 처한 여성들을 불법 성매매 산업으로 유인하면서 스스로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 즉 전도된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지점이다.

## 2)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과 한계

다니엘과 케이티네가 맺은 유사가족적 관계는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케이티가 일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가 그녀를 만류하는 다니엘의 모습, 경계 밖으로 내몰린 다니엘을 설득해 질병수당 재심을 받도록 돕고 재판정까지 동행하는 케이티의 모습은 레비나스가 말했듯이 타자를 환대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윤리적 관계 안에 있다. 케이티는 다니엘의 신뢰 덕분에 성매매를 그만두고 청소일을 다시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과 느슨한 관계에 놓인 주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을 통해서도 복지 제도의 빈틈을 자발적으로 메워나가려는 시도로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관계의 거리를 확장해 보면, 일자리센터의 운영 방침에 분노한 다니엘이 건물 외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 나는 개가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글을 썼을 때, 거리의 행인들이 보인 응원과 지지의 박수도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한 적극적인 남성은 복지부 장관을 비판하며 다니엘에게 외투를 벗어주기도 한다. 마지막 시퀀스인 질병수당 재심을 위한 항고 재

판정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재판에서 지면 노숙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다니엘에게 깊이 공감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한다. 그가 장애인이라는 설정은 타자화된 주체들이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서로 돕고 연대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그러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힘없는 사람들의 상호부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줄 뿐 낙관하지는 않는다. 낙관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상업영화가 주는 판타지와 유사하게 현실의 모든 모순이 결국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현상 유지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즉 공동체 회복 가능성의 한계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호부조와 연대가 애초에 공유한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과 도서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느슨한 연대가 우연성, 일회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다니엘은 재심 재판정에서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한다. 제도의 모순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개인에게 떠맡겼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다. 다니엘이 수당을 받을 만큼 쇠약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바로 그 심판이 수행되는 곳에서 증명하는 죽음이 된 셈이다. 다니엘을 애도하기 위한 장례식에는 이웃으로 등장했던 사람들, 즉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타자들이 모인다. 케이티의 애도는 다니엘이 재판정에서 읽기 위해 써두었던 글을 낭독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실한 목수이자 좋은 이웃, 그리고 책임을 다해왔던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자신을 주체로 선언하는 다니엘의 서사이자 그의 마지막 시간을 공유했던 케이티의 선언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장례식 장면은 다니엘의 죽음이 결국 제도의 실패를 개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공동체 회복의 어려움을 재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이제 주체가 타자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들 간의 상호부조를 넘어선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IV.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타자화된 주체가 타자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방법을 개인 주체의 상호부조와 연대를 넘어선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기서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대두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지체로서의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사건을 깨닫고, 믿고,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종말론적인 구원의 소식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심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며, 관용적인 공동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본 주체의 타자화와 공동체 상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환대의 공동체

환대는 낯선 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공간에 초대하는 것으로써, 권리를 상실한 사람의 권리를 회복해 주고, 자리를 상실한 사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경, 2015, 207-208). 그러나 현대 사회의 불완전성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로 인한 극명한 약육강식의 경제구조 속에서 가장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삶의 자리는 항상 조건부로 주어지며, 그 결과 환대는 상대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을 순수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닌 가치를 따지는 잣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은 존재 자체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서, 가치 자체는 따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Kant, 2009, 59-60).

성경에 의하면, ‘환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눅 10:25-37; 히 13: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낯선 이들에 대해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Russel, 1993, 173). 또한 환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Russell, 2012, 24). 즉, 중앙에서 주변부로 시선을 옮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Russel, 1993, 175-176). 물론 데리다는 절대적인 환대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성경적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일 것이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도 공동체 안에 초대되었으며 깊은 환대의 교체를 누렸다(행 2; 갈 3:28). 이는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김성원, 2023, 143). 또한 초대교회는 환대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성을 통해 존재론적 의미를 찾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마치 삼위일체에서 삼위가 서로 구별되고, 독자적이지만 서로 관계성 안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다른 사람과 관계성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김성원, 2023, 144). 그리고 이를 통해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수평적 관계의 친밀감을 넘어 통합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송오식, 2022, 21). 이는 데리다가 말한 타자의 타자성(otherness)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열어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향순, 2019, 419; Jennings, 2024, 239).

이제 교회는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낯선 자들을 존중하고 환대해야 한다. 또한 비단 공동체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아닌 낯선 자들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낯선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낯섬 그 자체라기보다는 낯섬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낯섬이 주는 차이는 종종 낯선 이들을 공동체로부터 밀어내거나 배척하거나 억압하는 데에 하나의 핑계가 되기도 하였다(Russell, 2012, 50). 그리고 교회가 낯섬과 차이를 통해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 구성원을 나누고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Russell, 2012, 50).

그러나 교회는 낯선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가 교회공동체 안의 환대가 되어야 함을 다시금 상기해야 한다. 그 안에는 성별, 나이, 인종, 부와 지식의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인식과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Russell, 2012, 39-40; Derrida & Dufour-mantelle, 2023).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3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참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정하는 갈등, 편견, 부조리 등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관심과 의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Russell, 2012, 42-43).

이제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연결된 총체적 영성을 지향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방하도록 권면해야 한다(Russell, 2012, 43). 낯선 이를 공동체 안으로 들이는 일은 곧 '내가 있는 곳으로'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것, 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까지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Derrida & Dufourmantelle, 2023, 181). 이를 통해 이미 도래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한다(Russell, 2012, 43).

## 2. 평등의 공동체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적당하고 적합한 자리와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Arent, 1996, 261). 이는 각 개인에게 상호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공간 안에서 타인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성원권'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된다.

내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듯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관계를 맺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상대방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김현경, 2015, 58-59). 이는 타자를 위해 단순히 자신을 소거하는 것이 아닌 각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와 주체 간의 만남,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고용수, 2015, 17). 이때 전제해야 할 사실은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없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김성원, 2023, 151).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 다니엘은 일자리센터에서 모욕감을 느낀다.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리 저변에 깔린 실업자들에 대한 편견이 다니엘로 하여금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 민원인들이 처한 실직의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로 치부하고, 그들의 호소에 귀를 막아버리는 행태는 복지 대상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우이다. 이와 같은 낙인은 평등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사회제도 안에 사각지대를 만들어 당연하다는 듯이 차별의 작태를 하게 만든다(김현경, 2015, 110).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사회적 위치 체계의 수평적인 구조와 수직적인 구조 가운데 상황에 따라 전환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김현경, 2015, 142).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경제적 배제를 당하는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배제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권리를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경제적 배제로 인해 사회적 권리를 제한받거나 박탈당한 것을 문제시하여,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이며, 우리가 사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김현경, 2015, 145). 물론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편한 관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다. 다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현경, 2015, 160-162).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예수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과정 안에 타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공존하지만 더 나아가 타자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교회가 온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예로 성찬을 들 수 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함과 죄의 속죄, 믿음의 고백을 자리에 초대할 때,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사회

가 부와 가난, 학문의 우위, 권력의 유무, 나이의 높고 낮음 등의 배경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교회는 그렇지 않다. 모인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 평등한 존재적 가치를 가진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더욱 파격적이다. 그들에 대한 단순한 구제가 아닌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섬김의 주체이자 객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찾도록 한다(김정희·박은혜, 2021).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모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며, 각 개인의 인격과 주체성,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성원, 2023, 146).

### 3. 상호호혜적 공동체

교회는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헌신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가난하고 약한 자,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교제와 위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뒤따르는 교회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송오식, 2022, 22-23). 그런데 섬김이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섬김을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정해진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의지에 따라 서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생산적 복지를 주장한다.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경우처럼 서류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겉으로는 건강한 듯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건강한 신체로 인해 그들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며, 일하지 않는 무능한 존재, 즉 세금을 축내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며, 그들에게 드리는 잣대가 그들을 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평등과 공평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은 모든 이에게 같은 기회, 같은 복지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시대와 개인의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가 옳은가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또한 주체적으로 살아왔던 한 개인이 그의 시간과 사색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과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존재처럼 여겨진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회는 성별, 나이, 인종, 학력과 경제력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동체이자 이를 통해 주체가 존재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강조

하며, 시대적·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약자들에 대해 도움의 손을 기꺼이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 ‘관계’를 통해 영적인 의식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김정희, 2019, 143; 박연규, 2011, 129). 약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문제와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한정된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김도일, 2016, 71). 더 나아가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주된 생산적인 존재들에게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반문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비생산적인 존재로 낙인찍혀버린 노인에 대한 재이해도 요구된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는 각자의 시간에서 가치있는 존재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기준에 의해 약자로 호명된 자들에 대한 역발상을 통해 교회와 사회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존재 의의에 대해 재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 V. 나가는 말

현대 사회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 과거에 비해서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로 인해 과도한 경쟁과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구성원을 타자화시켜 사회 밖으로 추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복지 제도는 사회구성원을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복지 제도 역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차용해 원래 제도의 존재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하는 갈등을 재현하고 개인 주체 간의 상호부조와 연대를 통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러나 영화의 결말이 보여주듯, 이미 구조화된 양극화와 과도하게 매뉴얼화된 복지 제도는 힘 없는 자들의 연대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객관적 현실로 존재하는 불평등의 심화, 현대 사회의 고유한 특징에서 비롯된 개인 주체의 고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진단과 처방이 수없이 시도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전 지구화된 세계를 볼 때 갈등의 양상이 보편적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가 일상화된 현실에

서 사회구성원의 인간적 존엄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구하였다. 논구의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교회가 보여주었던 공동체성이 갖는 가치였다. 이에 교회가 현대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 상호호혜적 공동체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교회의 구성원을 넘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신을 실천할 때, 현대 사회의 갈등적 양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참된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Kang, Y. A. (2005). *The Face of Others-Philosophy of Levinas*. Seoul: Literature and Intelligence publis.]
- 고병권 (2009). **추방과 탈주**. 서울:그린비출판사.
- [Ko, B. K.(2009). *Deportation and Escape*. Seoul: Greenbee.]
- 고용수 (2015).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 형성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1**, 13-46.
- [Koh, Y. S. (2015).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in Building a Faith Community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13-46.]
- 김도일 (2016).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 51-93.
- [Kim, D. I. (2016). Christian Education in and with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7**, 51-93.]
- 김성원 (2023). 한국사회 양극화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공동체성. **신앙과 학문**, **28(2)**, 137-163.
- [Kim. S. W. (2023). Bipolar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and the Trinitarian Communitarity. *Journal of Faith & Scholarship*, **28(2)**, 137-163.]
- 김정희 (2019). 반응적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효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66**, 121-151.
- [Kim, J. H. (2019). Understanding Hyo in the Context of Responsive Communitarianis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243-272.]
- 김정희·박은혜 (2021). 코로나 시대 기독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43-272.
- [Kim, J. H.,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during the Corona Perio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243-272.]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Kim, H. K. (2015). *People, Place, Hospitality*. Seoul: Literature and Intelligence Publis.]
- 송오식 (2022). 마을공동체의 의의와 정책 과제. **종교문화학보**, **19(1)**, 1-26.
- [Song, O. S. (2022). The Significance of Local Community and Policy Task: On the view of Christianity. *Journal of Religious Culture*, **19(1)**, 1-26.]
- 박연규 (2011). 시민인문학에서 자율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성. **철학·사상·문화**, **12**, 112-136.
- [Part. Y. G. (2011). Autonomy and Liberty of the Citizen Humanity, and the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Philosophy, Thought and Culture*, **12**, 112-136.]
- 윤종욱 (2020). 켄 로치 영화의 변화와 연속성: <캐시 컴 홈>과 <나, 다니엘 블레이크> 비교 분석. **영화연구**, **85**, 18-21.
- [Yoon, J. U. (2020).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Cinema of Ken Loach: A Comparative Analysis of <Cathy Come Home> and <I, Daniel Blake>. *Journal of Flim Studies*, **85**, 18-21.]
- 윤효녕·윤평중·윤혜준·정문영 (1999). **주체 개념의 비판; 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Yoon, H. N., Yoon, P. J., Yoon, H. J., Jeoug, M, Y. (1999). *Criticism of the Concept of Subject: Derrida, Lacan, Althusser, Foucault*.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 이향순 (2019). 공감에 기초한 타자 지향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0**, 405-435.
- [Lee, H. S. (2019). A study on Other-oriented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Empath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405-435.]
- 황경훈, 이미영 (2014). 소공동체 운동,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 한국 천주교회 소공동체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학전망**, **186**, 147-187.
- [Hwang, K. H., Lee, M. Y. (2014). Small Christian Communities, Going Beyond the Walls of the Church: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a Role in the Public Sphere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s SCCs. *Journal of Theological Outlook*, 186, 147-187.]

Arent, H. (1996). **인간의 조건**. 이진우, 태정호 역. 서울: 한길사. (원저 1958 출판)

[Arent, H. (1996). (*The*) *Human Condition*. Translated by Lee, J. W., Tae, J. H. Seoul: Hangilsa.]

Derrida, J. & Dufourmantelle, A. (2023). **환대에 대하여**. 이보경 역. 서울: 필로소픽. (원저 1997 출판)

[Derrida, J. & Dufourmantelle, A. (2023). *About Hospitality*. Translated by Lee, B. K. Seoul: Philosophik.]

Jennings, T. W. (2014). **데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 정의에 대하여**. 박성훈 역. 서울: 그린비출판사. (원저 2006 출판)

[Jennings, T. W. (2014). *Reading Derrida/ Thinking Paul: On Justice*. Translated by Park, S. H. Seoul: Greenbee.]

Kant, I. (2009). **도덕형이상학의 기초**. 강태원 역. 파주: 다락원. (원저 2002 출판)

[Kant, I. (2009). *Grounding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lated by Kang, T. W. Paju: Darakwon.]

Russell, L. M. (1993). *Church in Round: A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Church*.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Russell, L. M. (2012). **공정한 환대**. 여금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09 출판)

[Russell, L. M. (2012). *Just Hospitality*. Translated by Yeun, G. H.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bociety of Korea.]